

- 주요 뉴스: 트럼프 대통령,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협상 및 對이란 압박 재개
 - 미국 5월 개인소비지출 감소, 근원 PCE 인플레이션 상승, 소비자신뢰지수 반등
 - 카시카리 미니아폴리스 연은 총재, 올해 2회 금리인하 가능
 - 미국 대형은행, 연준의 연례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도 협상기한 연장 가능성으로 투자심리 유지
 - 주가 상승[+0.5%], 달러화 강세[+0.1%], 금리 상승[+4bp]
 - 주가: 미국 S&P500은 무역협상 기대가 유지되며 사상 최고치 경신
유로 Stoxx600지수는 1.1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위협 등으로 상승
유로화 가치는 +0.1%, 엔화 가치는 -0.2%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근원 PCE 인플레이션 오름세 등으로 상승
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2bp 상승

※ 뉴욕 1M NDF 증가 1362.0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364.6원, 0.5% 상승). 한국 CDS 하락

주 가					환 율				
	6/27일	6/26일	전일대비		6/27일	6/26일	전일대비		
미국	6,173.1	6,141.0	0.52%	국채 금리 10y	미국	4.28%	4.24%	4bp	
유럽	544	537	1.14%		독일	2.59%	2.57%	2bp	
중국	3,424.2	3,448.5	-0.70%		영국	4.50%	4.47%	3bp	
일본	40151	39585	1.43%		CDS 5y	한국	26bp	27bp	-1bp
한국	3055.9	3079.6	-0.77%			중국	51bp	51bp	0bp
달러지수	97.254	97.147	0.11%	위험 지표	EMBI+	371	375	-4bp	
유로화	1.1718	1.1701	0.15%		VIX	16.32	16.59	-1.63%	
엔화	144.7	144.4	-0.16%		WTI유	65.52	65.24	0.43%	
위안화	7.1726	7.1676	-0.07%	원자재	구리	506.85	506.60	0.05%	
원화	1357.4	1356.9	-0.04%		금	3274.3	3327.9	-1.61%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트럼프 대통령,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협상 및 對이란 압박 재개

-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움직임에 대응해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협상을 중단하고 다음주 내에 새로운 관세율을 부과할 것이라고 소셜 미디어에 게시. 또한 교역 상대국에 향후 10일 내 상호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보낼 것이며, 협상 기한을 단축할 수도 있다고 압박.
- 캐나다는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진행. 부과 규모는 연간 C\$2,000만을 초과하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의 3%, 첫 납부 기한은 6.30일, '22년까지 소급 적용
- 한편, 베센트 재무장관은 노동절(9.1일)까지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이 가능하다고 협상 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
- EU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으며,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최근 몇 주간 빨라진 EU의 협상 속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
-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금요일 성명을 통해 최근 며칠 간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으며, 통제 품목의 수출 허가 승인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
- 한편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면서 후임으로 금리인하를 원하는 인물을 선택할 것이라고 발언. 의회에는 세제개편안의 신속한 통과를 압박(상원 토요일 표결 예정)
-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자 이란에 대한 제재완화 계획을 철회하고 이란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경우 다시 폭격할 수 있다고 압박. 다음주 회담할 예정이며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란 측은 핵협상 재개 주장을 일축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5월 개인소비지출 감소, 근원 PCE 인플레이션 상승, 소비자신뢰지수 반등

- 개인소비지출은 예상 외로 전월대비 0.1% 감소. 관세를 앞둔 선제적 구매의 긍정적 영향이 사라진 데 기인. 근원 PCE 인플레이션은 2.7%로 예상(2.6%)과 전월치(2.6%)를 상회
- 한편 미시건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월 6.6%→6월 5%, 5~10년은 4.2%→4%로 하락. 소비자신뢰지수는 52.2→60.7로 상승하며 4개월래 최고수준

■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, 올해 2회 금리인하 가능

- 금년 두 차례의 금리인하가 가능하며 첫 번째 인하는 9월에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. 다만,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연준 위원들은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첨언

■ 미국 대형은행, 연준의 연례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

- 22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모든 은행이 심각한 위기(실업률 10%, 주가 -50%, 상업용부동산 가격 -30%) 시나리오 하에서의 예상 손실 \$5,500억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자본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. 보통주자기자본 비율은 11.6%로 1.8%p 하락하나 규제 수준(4.5%)을 크게 상회
- 한편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(FDIC)는 연준 이사회가 가결(6.25일)한 '강화된 보완 레버리지 비율(eSLR)'에 대한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발표

■ 일본 도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, 전월대비 완화

-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.1% 상승하며 5월의 +3.6% 대비 완화. 이는 연료 보조금 재개, 수도 요금의 일시적 인하 등에 기인

■ 대만 중앙은행의 외환개입 가능성 제기

- 대만달러화 환율이 금요일 오후 급격히 상승 전환하며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제기. 금년 대만달러화 큰 폭 강세(12%)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와 달러자산 익스포저가 높은 생명보험 산업에 압력이 가중
- 한편 태국 중앙은행 부총재는 펀더멘털과 동떨어진 시장심리에 의해 바트화 움직임을 불안정해질 경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언

■ 베트남 의회, 부실 은행 지원 및 부실 채권 처리 법안 통과

- 중앙은행에 은행시스템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(문제 있는 은행에 무담보 특별대출 제공 등)하고, 상업은행이 부실대출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명확성을 제공(대출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부실채권의 담보자산 압류 허용)하는 개정법 통과

주요 경제지표

■ 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(6/30~7/4)

- 미국 6월 고용지표, 주요국 PMI, 유로존 6월 HICP(예비치) 등
- 신평트라 포럼(Fed, ECB, BoE, BoJ 등 주요 중앙은행 총재 연설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4, E-mail yshwang@kcif.or.kr